

PET CT를 통해 진단된 재발 다발연골염 1예

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장내과

김선우, 권영주, 표희정, 고강지, 홍유아

A Case of Relapsing Polychondritis Diagnosed by PET CT

Sun Woo Kim, Young-Ju Kwon, Hee-Jung Pyo, Kang-Ji Ko, Yu-Ah Hong

Division of Nephrology,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

서론: 재발 다발연골염은 원인 미상의 자가면역 질환으로, 연골조직으로 구성된 장기에 발생하는 염증을 특징으로 한다. 연간 발생률은 100만명 당 3.5명으로 남녀간의 차이는 없으며, 20-60세 사이에 대부분 발병한다. 귀, 코, 인후 등의 연골 조직은 물론, 눈, 피부, 소화기, 신장 등의 비연골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. 본 저자들은 완전 관해를 보인 막 사구체신염 환자에서 발생한 재발 다발연골염 1예를 PET CT를 통하여 진단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: 63세 남자로 내원 20일 전부터 발생한 발열, 오한으로 내원하였다. 20년 전 대장암으로 결장절제술 및 간부분절제술, 8년 전 전립선암으로 방사선치료한 과거력이 있다. 또한 5년 전 부터 막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되어 완전 관해 후 cyclosporin 100 mg (1.3 mg/kg) 유지 중이었다. 1년 전부터 양측 외이 통증 및 청력 감소 있었고, 6개월 전 부터 시신경염 및 공막염, 포도막염으로 타 병원 안과에서 치료 중이었다.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PET CT에서 양쪽 귀의 외이도, 대동맥 및 온목동맥에 광범위한 대사과다 소견이 관찰되었다. 재발 다발연골염 진단 후에 스테로이드 시작하였으며 이후 감량하게 되면 다시 악화되는 등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.

결론: 재발 다발연골염은 연골의 진행성 염증 파괴를 보이는 질환이다. 드물지만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는 질환이므로, 이러한 소견의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재발 다발연골염을 의심하여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. 사구체신염 환자 추적 시 발열을 동반한 위와 같은 소견을 보일 때 이 질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.

Key Words: 재발 다발연골염

Relapsing polychondritis